



교육연합신문



2010년 1월 27일(수) 제 34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32-433-1633



인물탐방>>> 조선대학교 김시욱 교수 7면

유킴클레이로 이 유해적조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연구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우수연구성과물에 선정되기도 한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시욱 교수를 만났다



연중기획>>> 지하철 2호선 문화기행 16면

본지에서는 '폭 넓은 경험을 통한 바른 인격체로서의 성장'이라는 체험학습 본래의 가치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중 기획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문화기행'을 마련했다.



한국관광공사 추천 기발만한 곳 13면

한국관광공사는 '근대 문화유적을 찾아서'이라는 테마하에 2010년 2월의 기발만한 곳으로 '인천 개항 120년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천광역시 중구) 등을 발표했다.

등록금 인상 마음대로 못한다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 넘지 못해

앞으로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때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18일 취임후 학자급 상한제 특별법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매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압도적인 표차(재적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99표, 반대 8표, 기권 15표)로 통과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정해지면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크게 낮아지게 됐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이다(1월 4일 한국은행 발표).

대학의 등록금 상한선이 평균 5%대로 묶이면서 많게는 10%가 넘는 등록금을 인상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고등교육 정책의 한 획을 긋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온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마냥 '잠미밭'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학기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학들은 상한선에 막혀 인상하지 못하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을 시

급히 찾아내야 한다.

제도의 전격 도입과 함께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 힘을 키우려는 대학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총학생회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등록금 상한이 아니라 '인하'를 주장해 온 이들의 입장에서 이 제도는 각 대학에 평균 5%까지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적 안전판을 보장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대학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대학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 대학가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협력사 직원자녀까지

현대모비스가 직원 자녀를 위해 매년 실시해오던 영어 학습교육 프로그램인 '영어캠프'를 협력사 직원 자녀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영어캠프에 참여한 회사 및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영어교사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 청탁없는 투명인사 강력 지지

권진수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9일, 2010년도 교육청 간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초부터 모든 계획은 치밀하게 설계하고, 집행은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각계각층의 인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하고 있는 '인천 교육 경쟁력 강화방안'과 '학력

향상 방안'에 대해 인천의 모든 교육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오는 3월 1일 교원 및 전문직 인사기준으로 ▲ 중요 보직에 대한 정년대상자 철저 배제 ▲ 초·중등 주요 보직의 교차 보임 ▲ 적재적소 및 능력분위의 인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수

하고, 무엇보다도 일선학교, 지역교육청, 본청을 막론하고 외부 추천이나 청탁을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권진수 권한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인천교육청 개청 30년을 맞이하는 올해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체제로의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서울, 장학사 1년 단위 교체

서울시 교육청, 교원 및 전문직 '인사쇄신안' 발표

앞으로 서울지역 전문직 교원은 매년 근무지를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경희)은 24일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인사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전문직 교원의 1년 단위 전보, 본청 및 지역청 과장 1년 단위 교체 원칙, 일부 교육장 및 교장 공모 등의 '인사쇄신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각종 교육계 비리에 대한 '교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시행계획을 보면 오는 3월 전문직 교원에 대한 정기인사부터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학사와 장학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전보 대상자가 된다.

장학관은 현 직위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능력과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현직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달았다.

본청과 지역청 과장도 1년 단위 교체를 원칙으로 했다. 단, 이 경우에도 '능력과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본청 직속기관 기관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로 통일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전문직 교원들은 보통 2년 이상 한국에서 근무했으며 3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과학전시관장 등 두 곳의 본청 직속기관 기관

장과 남부교육청(중등)과 중부교육청(초등) 교육장 등 두 곳의 교육장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서울고, 신용산초, 대도초 등 4개 학교에 대해서도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 서울과학영재학교는 '개방형 공모제'를 적용해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교원 선호도가 높은 경기도, 서울고 등 선호학교 학교장 공모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동창회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교동초(8학급), 한강초(12학급), 공진초(13학급), 본동초(13학급) 등 4개 소규모 초등학교 교장도 공모하기로 했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수업 잘하는 교사 우대

올해 수석교사 333명 선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행정 중심이 아닌 수업 중심으로 교직사회를 전환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석교사제를 확대·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올해는 보다 엄정한 절차로 전국에서 333명('08년 171명, '09년 295명)의 수석교사가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수업 개선을 위한 교내·외 수업장학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일부 시범학교 수석교사사를 통해 인천교육청 개청 30년을 맞이하는 올해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체제로의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은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문화 수석과 함께 수석교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마포초등학교를 방문, 이 학교 수석교사인 황효순 교사 및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애로점, 성과 및 향후 방향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주호 차관은 "수석교사 제도가 우리나라 교원 조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교원자격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조만간 수석교사법제화 및 수석교사제 추진 방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써, 현

행 교장·교감의 학교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교직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범운영 대상 수석교사는 이달 시·도 교육청별 수석교사 선발위원회에서 3단계 전형(1차: 서류심사 ▶ 2차: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 3차: 동료교원 면담 등)을 통해 초등170명, 중등163명이 선발되었다.

선발교과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와 공업·상업에 관한 교과 등 총 12개 교과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적정 선발인원을 배분토록 하였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www.brainoasis.co.kr

두뇌 학습 훈련을 통한 수학적 능력 향상 프로그램

BRAIN OASIS

브레인 오아시스

총동성 + 부주의 + 과잉행동 조절훈련
16가지 온라인 기능성 게임!

우등생으로 키우고 싶다면, 주어진 과제를 꼭꼭 풀어서 키워주세요!

학교 및 단체, 기관에서 훈련 시 특별한 훈련 혜택

- 1. 100% 무료 체험 (30일)
- 2. 100% 무료 상담 (30일)
- 3. 100% 무료 평가 (30일)
- 4. 100% 무료 체험 (30일)
- 5. 100% 무료 상담 (30일)
- 6. 100% 무료 평가 (30일)
- 7. 100% 무료 체험 (30일)
- 8. 100% 무료 상담 (30일)
- 9. 100% 무료 평가 (30일)
- 10. 100% 무료 체험 (30일)
- 11. 100% 무료 상담 (30일)
- 12. 100% 무료 평가 (30일)
- 13. 100% 무료 체험 (30일)
- 14. 100% 무료 상담 (30일)
- 15. 100% 무료 평가 (30일)
- 16. 100% 무료 체험 (30일)

문의: 02-433-1633